

김근태 탈당·대선 불출마 선언

反한나라 汎與 大통합 ‘올인’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경선 참여하라”

통합 논의 급물살...대선구도 변화 올 듯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12일 범여권에 ‘대통합의 광장으로 달려나올 것’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탈당과 대선 불출마의 독백을 들었다.

고건 전 총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범여권 주자로서는 세 번째지만 정동영 전 의장과 함께 열린우리당 최대 주주였다는 점에서 김 전 의장의 백의종군 선언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범여권 대통합 구도와 대선 정국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여당의 실질적인 대주자가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역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정치적 퇴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범여권 대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김 전 의장이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의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김혁규 전 지사 등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름을 각기 거명하며 국민경선제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장의 사퇴가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게는 국민참여경선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이 김 전 의장의 회생을 바탕으로 국민참여경선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그동안 한 나라당 일방 우세국면에서 전개되던 대선 구도가 일거에 경합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또한, 김 전 의장의 백의종군 선언은 열린

우리당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면서 범여권 대통합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열린우리당 사수에 나서는 강경 친노세력의 명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대선 정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신설 합당 형식으로 통합민주당 창당에 나서는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의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의 배경은 한나라당 집권 저지에 대한 절박함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답답함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본격적인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범여권에서는 제정기간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꼬이는 것은 물론 소통합이 가시화되는 등 오히려 대통합에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이자 김 전 의장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전 의장은 이날 불출마 회견에서 “20년 전 민주세력의 분열 때문에 6월 항쟁이 군부독재 정권의 연장으로 귀결됐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12일 국회에서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대선 불출마와 우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범여 ‘李 BBK 의혹’ 파상 공세

부인 위장 전입·땅 투기 의혹도 제기

범여권의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주가조작 의혹, 이 전 시장 부인의 땅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범법지연단 차원에서 이 전 시장이 김경준씨와 BBK 투자자분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읍서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실시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BBK의 읍서널벤처스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 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실명인간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천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천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면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주가조작에 대한 철저한 인사를 위조했는 데, 금융감독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우리당 대선 예비주자인 김혁규 의원

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의 부인 김윤옥씨가 이 전 시장이 종로에 출마할 때 1차례를 빼고는 14차례 같은 행정구역인 강남구에서 주소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 구상은 실현될 수도 없지만, 만약 실현되면 생태계 파괴와 전국의 땅값 상승, 상수도 대란을 유발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은 이 전 시장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전 간담회에서 “박근혜(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는 동급이다. 둘 다 퍼스트레이디였고 쿠데타로 집권해서 독재한 동업자”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李측 “김-노-박이 이명박 죽이기 나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12일 당내 라이벌 박근혜 전 대표측과 범여권의 잇단 검증공세에 대해 “김노박(김정일-노무현-박근혜)의 이명박 죽이기 작전”, “김대업식 네거티브”, “고발특공대”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그동안 자체모드를 취해 오다 이 전 시장이 전날 경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박 전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을 계기로 측근들이 일제히 ‘전투모드’를 갖추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특히 이 전 시장측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전 시

장의 BBK 관련 의혹 및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집중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 “이명박 죽이기 플랜’이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장광근 캠프 대변인은 이날 “김노박 이명박 죽이기 작전’이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김정일도 이명박 공격’, ‘노대통령도 이명박 공격’, ‘박 전 대표측도 이명박 공격’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빗댄 말”이라고 꼬집었다.

캠프 내부에서는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검증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때 횡령·탈세”

설립자 아들 의혹 제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시절 업무상 횡령, 탈세,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5·한생산업 회장)씨는 12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를 방문, 이 같은 의혹을 담은 검증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요청서에서 “박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자격으로 연 2억5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민주, 통합 방법론 ‘全州 논쟁’

대통합과 “서두르지 말라”...당 지도부 “동참하라”

민주당이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신설 합당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 대통합파가 12일 전주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같은 날 전주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장성원 도당위원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도통합민주당’ 전북 설명회를 갖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낙연, 신중식, 김효석 의원 등 현역의원들과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진 광주시장 위원장, 정균환 전 의원 등 민주당내 대통합파는 이날 전주 회동에서 지도부가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합당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범여권 대통합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대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한 만큼 정국의 추이를 보면서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전체적인 정국의 흐름은 대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신중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낙연, 이상열, 채일병, 신중식,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대통합파는 박상천 대표가 특정세력 배제론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날 회동에서 탈당 등 추후 정치적 진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초반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합당이 선언되고 박상천 대표가 사실상 배제론을 철회함에 따라 민주당내 대통합파는 범여권 세력과의 접촉 등에

나서며 정국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이미 회동에서 특별히 결의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정국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현역의원들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이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에서 중도통합민주당 설명회를 갖고 대통합 배경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촉구했다.

장성원 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당은 중도개혁통합신당과 통합협상을 최종 타결짓고 대통합 세력 규합에 본격 나섰다”면서 “양당의 통합은 노무현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정치를 국민통합의 정치로 바꿔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오는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nyl.co.kr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간 변함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뉴욕생명- 재정적 안정성, 성실성, 인본주의 원칙으로 고객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의 파랑새, 뉴욕생명과 만나세요! 뉴욕생명이 약속하는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생명

보험상담 및 문의전화 062-236-2002

광주지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KT광주정보통신 6층